논어 9편 자한 2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後生可畏，焉知來者之不如今也？四十、五十而無聞焉，斯亦不足畏也已！」

독음 · 자왈 후생가외 언지래자지불여금야 사십오십이무문언 사역부족외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젊은 후배는 앞날을 알 수 없어 두렵게 존중할 만하다. 다만 나이가 들어서도 알려질 만한 성취가 없다면 그렇지 못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後 뒤 후 후 / 生 날 생 생

可 옳을 가 가 / 畏 두려울 외 외 / 焉 어찌 언 언 / 知 알 지

來 올 래 / 者 놈 자 / 之 갈 지 / 不 아닐 불

如 같을 여 여 / 今 이제 금 금 / 也 어조사 야 / 四 넉 사 사

十 열 십 십 / 五 다섯 오 오 / 而 말이을 이 / 無 없을 무 무

聞 들을 문 문 / 斯 이 사 사 / 亦 또 역 / 足 발 족 족

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